



#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장성 온다

### 오늘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서 강연 범죄 일상 파괴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준비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오는 20일 열리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맡는다. 권 교수는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등의 저서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중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다.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범인의 특징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2000년대 초반 윤외출 경무관에게 발탁되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가 된 권일용 교

수는 이춘재,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1000여 명의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일용 교수에 따르면 현대사회 범죄는 정서적 확대와 심리적 폭력으로 점철된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제1160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목요일인 20일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는 댄스팀 ‘미스몰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 강연은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이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강연 영상은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순군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

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

곡성군이 관내 딸기작목반을 대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와 보호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딸기작목반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주요 작물인 딸기 재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절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등을 보급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농작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알려진 ‘농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양혜영기자



## 담양군, 콩 농가 소득 보장 위한 콩 계약재배 협약 체결

### ㈜들풀, 담양군콩작목반과 협약...안정적 판로확보와 벼 재배면적 감축 기대

담양군이 지난 17일 (주)들풀(대표 박종호), 담양군콩작목반(반장 정호량)과 담양 콩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담양군과 (주)들풀, 담양군콩작목반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콩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호 (주)들풀 대표는 “콩 재배 기술교육, 농작

업 대행,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콩 재배로 산지 농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쌀 수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식품+기술’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선점 나서

### aT·농기평과 업무협약

나주시가 농식품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Food 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 핵심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18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과 ‘푸드테크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곳 기관은 협약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사업, 용역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관련 기업·기관 유치, 농업인 소득증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ESG가치 실천 등에 상호협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 고성장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응, 농식품분야 핵심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융복합 인재 3000명 양성, 1천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푸드테크 선도지역 선점을 위해 지난 1월 전남 조직인 ‘식품산업개발TF팀’과 3월 ‘푸드테크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농식품부에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푸드업사이클링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국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aT도 지난 2월 전남부서인 ‘푸드테크육성부’를 신설했으며 현재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에 유관기관 자격으로 참여 중이다.

여기에 농기평과 함께 지난 1월 정부가 출범한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협력 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어 나주시 푸드테크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